

극한 불볕더위에 얼음 주문 쇄도 “하루 하루가 전쟁”

폭염특보 14일째 ‘얼음공장’ 가보니

담양 ‘봉산냉동’ 이른 오전부터 분주
연일 생산틀 풀가동 하루 50t 생산
“종일 작업해도 수요맞추기 힘들어요”

“냉동창고에 얼음이 가득 차 있어야 버틸 수 있는데 지금은 절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른 폭염 탓에 주문이 쏟아지면서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10일 오전 8시께 담양군 봉산면 봉산냉동 제빙실에서는 얼음을 만들고 절단하는 작업자들의 손길이 쉴 새 없이 이어졌다. ▶관련기사 2·6면

한쪽에서는 9칸으로 구성된 대형 얼음틀이 기계에 의해 천천히 들어 올려졌고, 틀 주변으로는 뿌연 냉기가 피어오르면서 단단히 얼어붙은 얼음 모습이 드러났다.

얼음틀은 상온의 물에 여러 차례 담갔다 빼내는 과정을 거친 뒤 바닥에 내려졌다. 이내 큼직한 얼음덩이가 하나씩 떨어져 나오며 본격적인 ‘탈빙’ 작업이 시작됐다.

옆에서는 또 다른 작업자가 1개 당 약 150kg에 달하는 얼음을 절단기 옆으로 하나씩 옮겼다. 허릿심을 이용해 얼음을 밀고, 절단기에 붙여 네 조각으로 잘라냈다.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작업장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작업자들의 이마엔 굵은 땀방울이 맺혔다. 절단된 얼음은 곧장 2차 보관소인 제빙고로 옮겨졌다. 영하 18도로 유지되는 이곳에서는 흐트러진 얼음 조각들을 차곡차곡 정리해 쌓는



얼음속 구슬땀 연일 35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0일 오전 담양군 봉산면의 한 얼음공장에서 작업자들이 얼음을 만들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기자

작업이 진행됐다.

제빙실에서 작업자들은 탈빙이 끝난 얼음틀을 호스로 깨끗이 세척·소독한 뒤 물을 채우고 공기 주입 장치로 내부에 산소를 넣은 뒤 다시 제빙기에 투입했다. 모든 얼음 제조 과정은 습도릴 틈조차 없을 정도로 분주하게 이뤄졌다.

앞서 이날 오전 7시부터 제빙고 앞에서는 전날 생산된 얼음을 옮기는 작업이 시작됐다. 수산시장용, 각테일용 등 용도에 따라 분류된 얼음이

냉동 차량에 실렸고 곧바로 광주·전남 각지를 향해 떠났다.

20년째 얼음 생산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강기원(60대)씨는 “얼음틀을 움직이는 장비가 매우 무겁고 잘못 다루면 얼음이 깨질 수도 있어 늘 집중하다 보니 쉬는 시간이 되면 온몸에 힘이 풀린다”며 “예전엔 제빙실 온도가 16·17도 정도였는데 요즘엔 바깥 날씨가 워낙 뜨거워 20도를 넘는 날이 많아 얼음을 만지면서도 더위를 느낀다”고 토로했다.

7천여㎡ 규모의 공장은 올해로 가동 29년째를 맞았다. 얼음은 48시간에 걸쳐 생산되며 매년 5월 성수기로 접어들면서 주문이 몰리지만 올해의 경우 유독 빨리 끝난 장마 여파에 생산량보다 주문량이 훨씬 많아졌다.

200여개의 얼음틀은 주말도 없이 연일 완전 가동돼 하루 약 50t의 얼음을 생산하고 있다. 직원들 역시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이재인 봉산냉동 대표는 “얼음을 냉장차에 싣자마자 바로 출고할 정도로 주문이 밀려 있는 상황이다. 창고 4곳 중 2곳은 이미 비었고 나머지도 한 달 치 물량밖에 남지 않았다”며 “다음 달까지는 풀가동해도 얼음이 부족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광주·전남 지역에는 14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졌으며 기상청은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보했다.

/주성학 기자

광주매일 TV kjdaily.com (영상뉴스)

尹, 4개월만에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강의구·김성훈 진술 번복·회유 결정타

내란특검, 3주 만에 ‘몸통’ 신병 확보

외환수사 주목…한덕수 등 조사 속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 ▶관련기사 2·4·8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수사 개시 3주 만에 ‘몸통’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특검팀은 계엄 명분을 쌓으려고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로 수사망을 넓힐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7분께 직권남용 관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

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22분부터 6시간40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특검팀이 제시한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계엄 선포인 것처럼 속이려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수사를 대비해 내란 공범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범행 그 자체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특검팀 주장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혐의를 밝힐 중요 관계자인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의 수사기관 조사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개입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도 발부에 영향을 끼

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2일 출법한 뒤 몇새 만에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팀은 특유의 속도전을 구사하며 의혹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까지 성공했다. 특검팀은 최대 20일간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내란 관련 혐의는 검찰·경찰 단계서부터 어느 정도 다져왔던 만큼 구속 기간 남은 수사는 외환 혐의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 공범으로 적시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AI가 광주매일신문을
똑똑하게 읽어줍니다.

대통령실 “RE100 산단 특별법 추진”

재생에너지 100% 활용 호남 등 후보

李대통령 “파격적 전기료 할인 강구”

대통령실은 10일 “RE100(재생에너지 100%)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추진방안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RE100 국가산단에 위치한 기업은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100% 사용해 기업활동을 하도록 하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RE100 산단 확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날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규제 제로’ 지역이 되도록 검토해달라”며 “교육·정주 관련 지원도 더 획기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산단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전기료 할인 혜택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들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최우선 정책과제로 특별법 제정 및 산단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김 실장은 “서남권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 있음에도 전력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크다. 이로 인해 국가적 비효율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호남 등) 우리나라의 서남권이 자연스레 후보 지역으로 떠오를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울산 등 풍력발전이 강점을 가진 곳도 유리한 지역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oday

목포·보성 전남 남해선 ‘고속철시대’	3면
기획…‘복지사각지대, 법이 품는다’	6면
김호령, 최형우 부상 올스타전 출전	16면

다양한 실력이 미래다
다시, 교육의 본질로



광주광역시교육청
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